

충남리포트 제109호

ChungNam Report

2014. 05. 15.



CONTENTS

< 요약 >

1. 인구 저성장을 지나 감소시대로
2. 충남의 인구 현황과 특성
3. 충남의 읍면동 인구 추계
4. 인구격차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연구위원, jhim@cdi.re.kr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shong11@kong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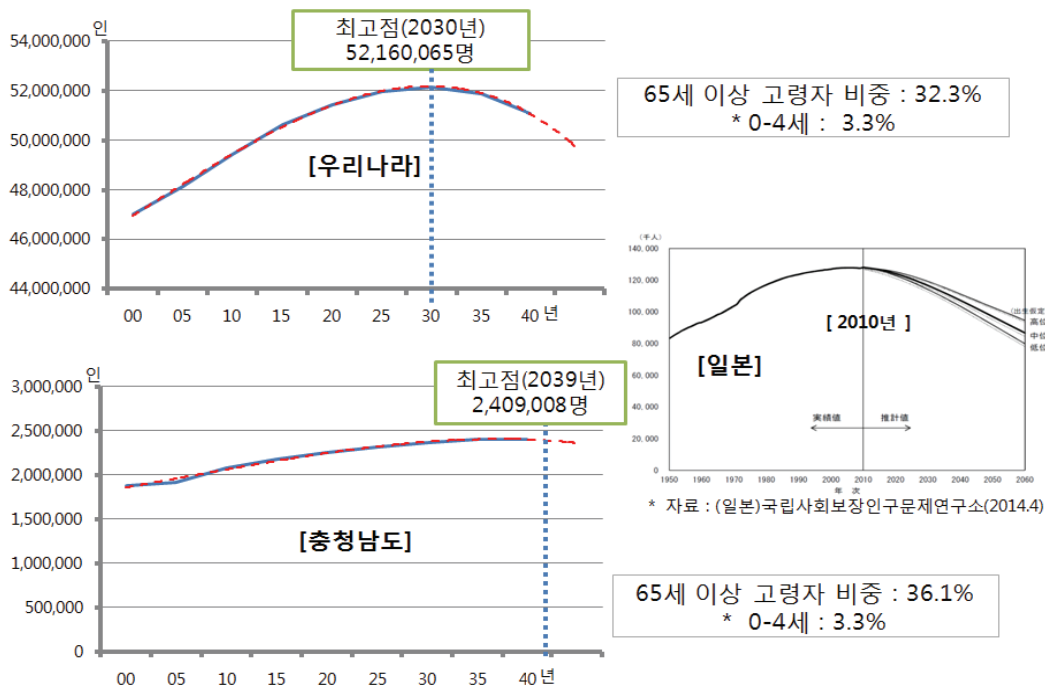
인구 저성장을 넘어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2040년 충남의 읍면동별 인구를 예측하고, 지역 간 인구격차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한 충남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요 약

- 인구 저성장을 넘어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다.
 -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충남은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충남 농촌 지역의 86.8%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됨
- 2039년까지 충남의 인구는 성장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인 대전에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뿐이고 대부분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한다.
 - 2040년까지 총 199개 읍면동 중 82.9% 지역에서, 특히 농촌 지역인 128개 면지역 중 94.1%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
 - 이 중 75.4%는 2010년 대비 인구가 1/4 이상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86.8%는 지금보다 1/3 이상 감소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 역시 이미 인구감소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간·도시 내 격차는 공간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 도시 지역은 개발보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농촌 지역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와 '마을 재편'에 집중하여야 함
 - 고령화는 충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인구 저성장을 지나 감소시대로 ◀

- 인구감소의 우려에도 충남의 인구는 성장하지만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
- 이에 반해 충남은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을 지난 2039년까지 인구가 증가함
 - 인구는 증가하지만, 고령자 비중은 오히려 36.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함
- 이러한 추세는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유사함



* 자료 : <http://kosis.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참조 재작성

* 충남의 인구는 연기군이 포함된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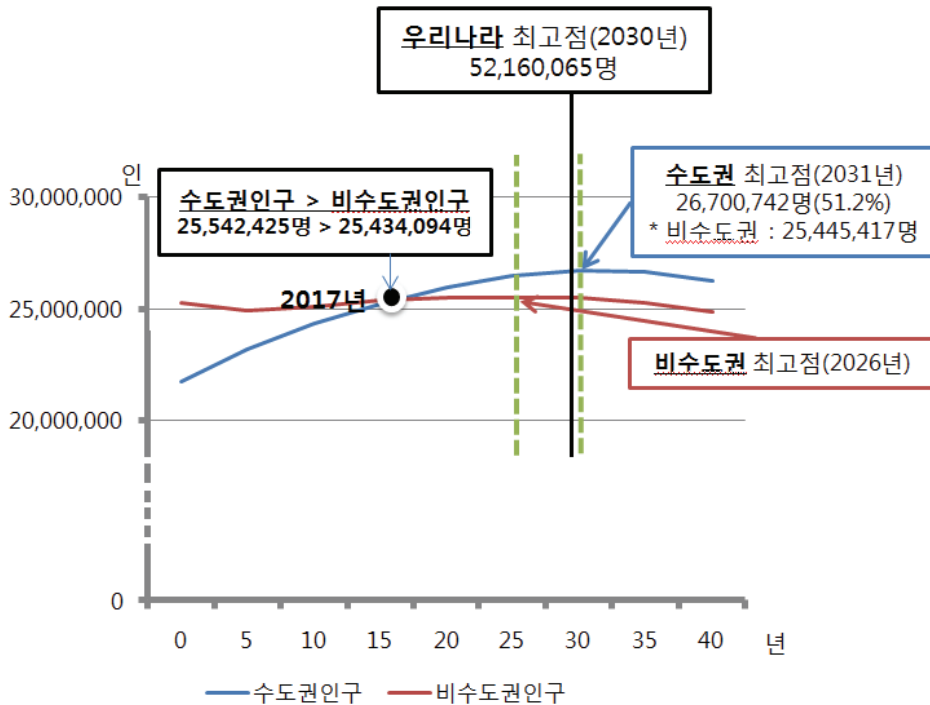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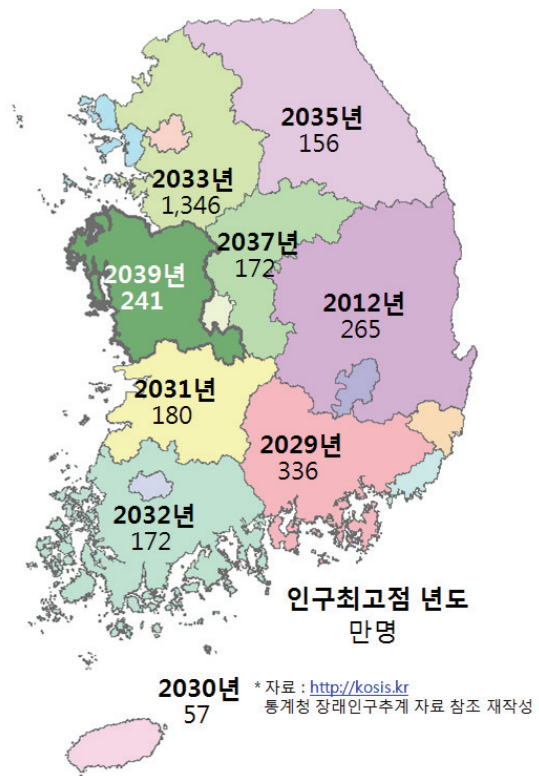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와 충남의 인구 추계

□ 인구저성장 및 감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고, 광역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남도는 2039년 241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비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2030년보다 앞선 2026년부터 감소하지만, 수도권은 2031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http://kosis.kr> (2014.4)_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참조 제작성

〈그림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계

충남의 인구 현황과 특성 ◀

02

- 충남의 총인구는 성장하지만 농촌 지역의 86.8%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
- 2010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충남의 인구는 동(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지만, 읍(도시와 농촌 혼재 지역)지역과 면(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함
 - 동지역의 65.8%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면지역 중 118개인 86.8%의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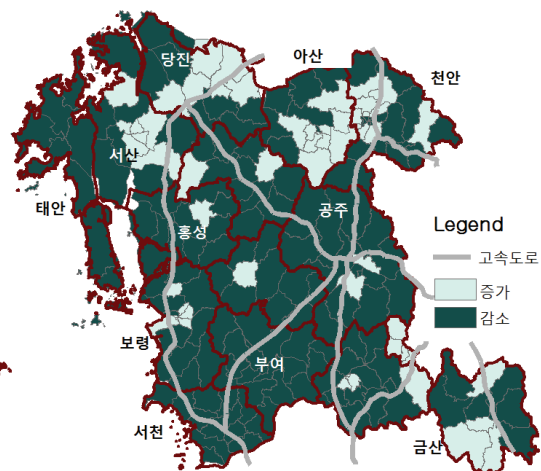
〈표 1〉 최근 충남의 인구변화('05~10년)

지역구분	증가지역 개수(%)	감소지역 개수(%)
동지역 (38개 지역)	25(65.8)	13(34.2)
읍지역 (25개 지역)	9(36.0)	16(64.0)
면지역 (136개 지역)	18(13.2)	118(86.8)
전체 (199개 지역)	52(26.1)	147(73.9)

* 자료 : <http://kosis.kr> _ 2005년,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 참조 재정리

* 분석에는 연기군에 포함된 읍면동을 제외하고 분석함

-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동지역과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지역 간 인구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인구격차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 이미 시작 되었음을 의미함



〈그림 4〉 2005~2010년간의 인구변화

□ 충남 읍면동 지역의 63.3%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 농촌 지역(면지역)일수록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고, 도시지역(동지역)도 고령 사회에 진입함
 - 총 136개 면지역의 86.8%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도시지역인 동지역의 절반 이상(55.3%)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문제를 넘어 충남,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그 심각성과 민감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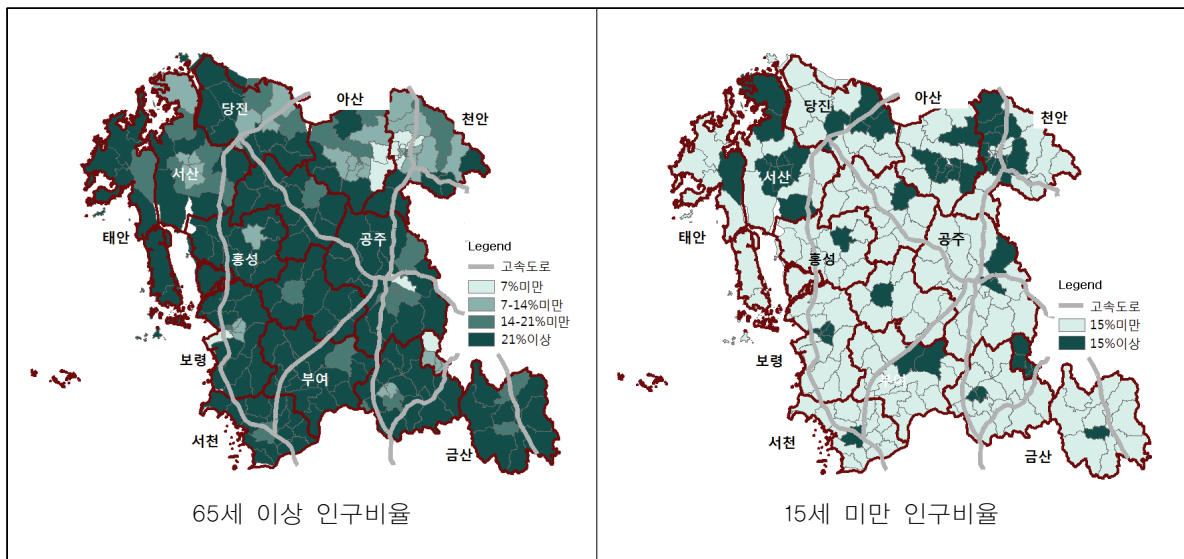
〈표 2〉 충남의 고령화 현황

(단위 : 개, %)

지역구분	일반사회 지역 (7% 미만)	고령화 사회 지역 (7-14% 미만)	고령 사회 지역 (14-21% 미만)	초고령 사회 지역 (21% 이상)
동지역 (38개 지역)	8(21.1)	21(55.3)	9(23.7)	0(0.0)
읍지역 (25개 지역)	1(4.0)	8(32.0)	8(32.0)	8(32.0)
면지역 (136개 지역)	2(1.5)	3(2.2)	13(9.6)	118(86.8)
전체 (199개 지역)	11(5.5)	32(16.1)	30(15.1)	126(63.3)

* 자료 : <http://kosis.kr> _ 2005년,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 참조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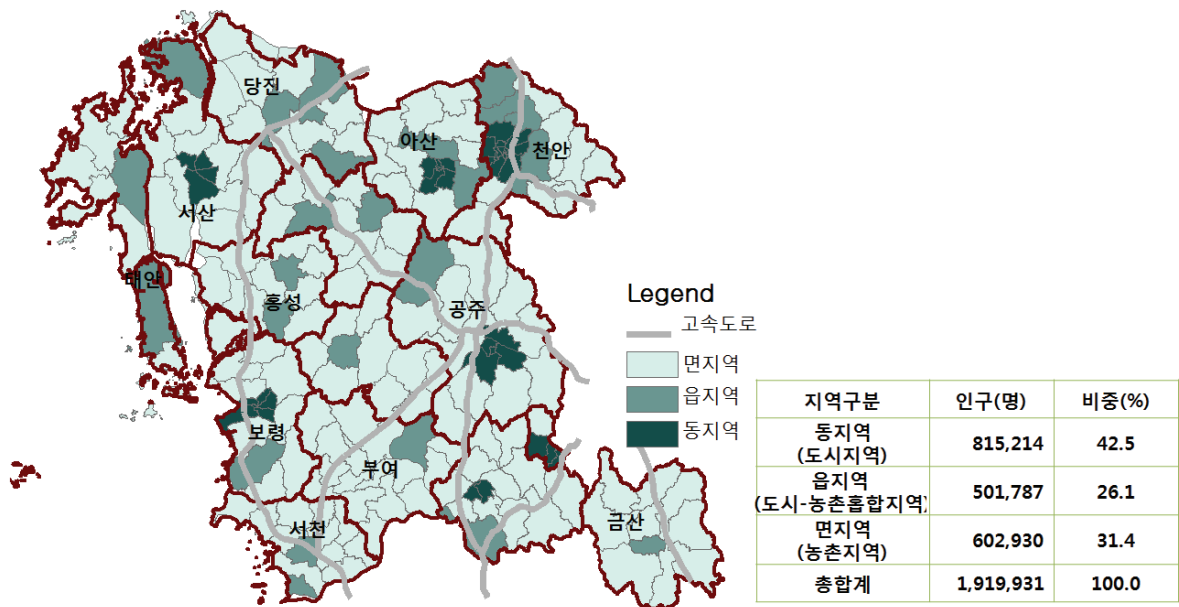
● 고령화는 물론,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15세 미만)은 많지 않음



〈그림 5〉 65세 이상과 15세 미만 인구의 분포

□ 분석의 자료와 공간적 단위

- [분석자료]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과 2010년 자료이며, 읍면동별 5세 단위 성별 인구수를 KOSIS의 지역 통계에서 내려받음
- [분석의 공간적 단위] 연도별 읍면동 변화 및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변화를 추적하여 최종 199개의 읍면동으로 설정함(2012년 205개의 읍면동)



〈그림 6〉 분석의 공간적 단위(읍면동)와 인구(2010년 기준)

□ 분석방법 : Hamilton and Perry(1962)와 Smith et al.(2001)에 의한 인구 추계

- 일반적인 코호트-조성법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생존율을 이용하여 이들의 장래 변화를 추정하나 실제 출생이나 사망 혹은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대신 기준 시점 이전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생존율을 계산하는 방법임(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일반적인 코호트-조성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개발 등 정책변수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 2040년에는 농촌 지역의 94.1%가 인구 감소

◎ 2040년에는 충남의 199개 읍면동 지역 중 165개인 82.9%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대부분(94.1%)의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

◎ 도시 지역인 동지역에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지만, 면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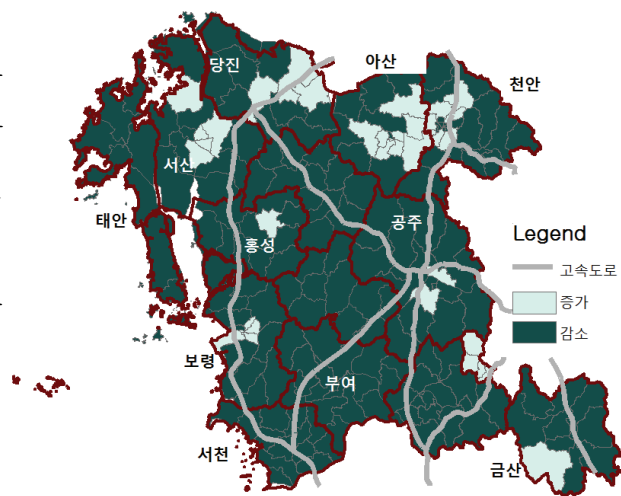
〈표 3〉 충남의 고령화 현황

(단위 : 개, %)

지역구분	2010~2020년 인구감소지역	2020~2030년 인구감소지역	2030~2040년 인구감소지역
동지역 (38개 지역)	17(44.7)	17(44.7)	17(44.7)
읍지역 (25개 지역)	19(76.0)	20(80.0)	20(80.0)
면지역 (136개 지역)	125(91.9)	127(93.4)	129(94.9)
전체 (199개 지역)	161(80.9)	164(82.4)	166(83.4)

◎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특히, 충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함



〈그림 7〉 2010~2040년의 인구증감

□ 2040년 농촌 지역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

● 2040까지 2010년보다 인구가 1/4 이상 감소하는 지역이 75.4%이며, 1/3 이상 감소하는 지역도 7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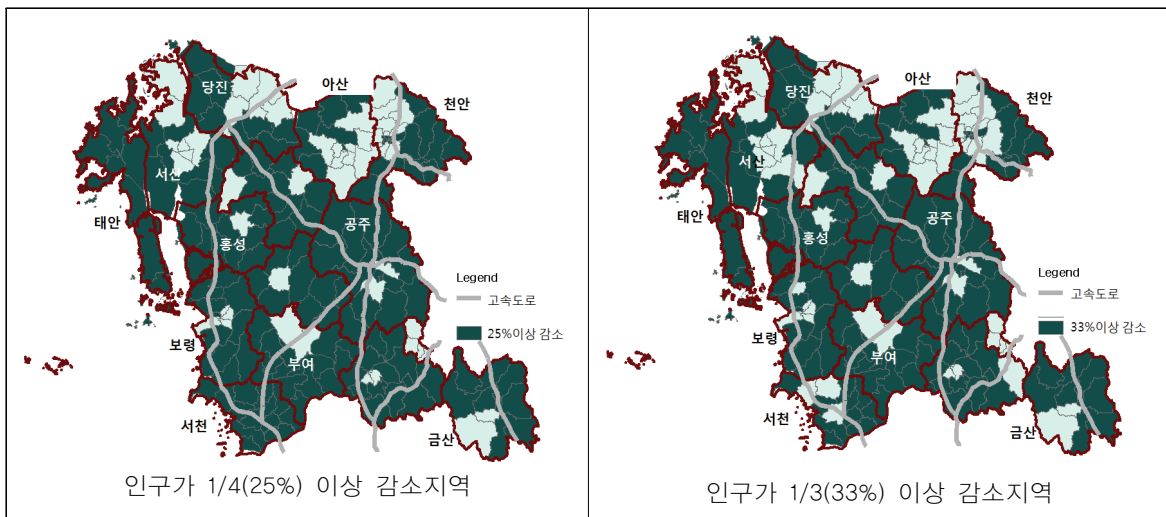
● 특히, 농촌 지역의 90% 이상이 2010년의 인구보다 1/4 이상 감소하여, 인구 과소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향후 30년간의 인구변화

지역구분	2010~2040년 33% 이상 감소 지역	2010~2040년 25% 이상 감소 지역
동지역 (38개 지역)	12(31.6)	13(34.2)
읍지역 (25개 지역)	12(48.0)	14(56.0)
면지역 (136개 지역)	118(86.8)	123(90.4)
전체 (199개 지역)	142(71.4)	150(75.4)

* “ () ”는 전체지역에서 감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의 성장과 충남 내륙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 뚜렷이 차별되고, 심각함



〈그림 8〉 향후 30년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분포

04

▶ 인구격차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

-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강화
- ◎ [국가균형발전(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규제는 계속되어야 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지역균형발전] 충남의 전체인구는 2039년까지 성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 인접지역과 충남 내륙지역의 인구격차는 더욱 커져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
 - 충남도 역시, 이점을 인식하여 타 광역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제1기, 제2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지금까지의 정책을 재진단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마련
- ◎ [공간복지] 공간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관점의 공간정책이 요구됨
 - 도시와 농촌 어느 공간에서 생활하더라도 충남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이미 지역 내 인구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공간복지 차원의 새로운 지역 정책이 요구됨
 - 복지와 지역민 행복 관점에서 지역발전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농촌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 [도시재생]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도시 지역 내에서도 성장하는 신개발지와 쇠퇴하는 구도심이 양극화되고 있어, 쇠퇴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과 연계하여, 전략 사업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 [농촌재편] 농촌 지역에서 인구 과소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에 대한 배려와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됨
 -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한계(限界) 마을’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상세내용은 2014년 2월 25일 발간된 ‘충남리포트 101호’ 참조)
 -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농촌 마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 농촌 마을의 재편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농촌 주거지의 집단화, 고령자를 위한 쉼어하우스, 코하우징 공급 등 지역과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함

- ◎ [고령화 대응] 충남의 전체인구는 증가함에도, 고령화는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중점적·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고령화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연구과제

- ◎ 본 분석의 인구 추계에도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 이는 자료와 분석기법 부족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계열적 통계 및 공간 DB의 구축,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등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 예를 들어 행정동, 더 나아가 마을단위의 인구 변화와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예측과 대응방안 모색 등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붙임자료) 충남 읍면동 인구 추계 방법

□ 분석방법

● 인구추정방법론

- 보편적으로, 장래 인구의 추계는 경향-외삽법, 구조방정식 접근법, 코호트-조성법이 주로 이용
- 경향-외삽법은 연령대별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인구변화의 추세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를 예측
- 구조방정식 접근법은 특정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를 예측하며, 주로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변화를 예측
- 코호트-조성법은 연령대별 인구변화 요인, 즉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지만, 일반적 코호트-조성법은 연령대별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의 지역, 이를테면 읍면단위에서의 인구추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Hamilton and Perry(1962)와 Smith et al.(2001)에 의한 인구추정법

- 본 연구에서는 Hamilton and Perry(1962)와 Smith et al.(2001)에 의한 방법을 이용
- 이 방법은 일반적인 코호트-조성법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생존율을 이용하여 이들의 장래 변화를 추정하나 실제 출생이나 사망 혹은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대신 기준 시점 이전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생존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두 시점의 연령대별 인구수만을 가지고 장래 인구를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연령대별 인구변화 비율(cohort change ratio)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_nCCR_x = \frac{{}_n P_{x+y,l}}{{}_n P_{x,b}}$$

여기서, ${}_n P_{x+y,l}$ 은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1)에 집계된 (x+y)세부터 (x+y+n)세까지의 인구수이고, ${}_n P_{x,b}$ 는 바로 이전 시기의 인구조사(b)로부터 집계된 x세에서 (x+n)세의

인구수, 그리고 y 는 두 인구조사 간의 연도 차이를 나타냄

이를 이용한 장래의 인구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음

$${}_n P_{x+z,t} = {}_n CCR_z \times {}_n P_{z,l}$$

여기서, z 는 1과 t 사이의 기간에 해당함

반면, 0세에서 4세까지의 연령대 인구수는 성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Smith et al., 2001)

$${}_5 FP_{0,t} = \frac{{}_5 FP_{0,l}}{49 FP_{15,l}} \times {}_{49} FP_{15,t}$$

$${}_5 MP_{0,t} = \frac{{}_5 MP_{0,l}}{49 FP_{15,l}} \times {}_{49} FP_{15,t}$$

여기서, FP와 MP는 각각 여성 인구수와 남성 인구수를 나타냄

◎ 방법론상의 한계

- 일반적인 코호트-조성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도시계획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조영재, 2014. 2, 사라지는 농촌 마을! 한계(限界) 마을정책 도입해야, 충남발전연구원(충남 리포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www.kosis.kr)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www.ipss.go.jp)

Hamilton, H. and J. Perry. 1962. "A Short Method for Projecting Population by Age from One Decennial Census to Another". *Social Forces* 41(2): 163-170.

Smith, S., J. Tayman and D. Swanson. 2001. *State and Local Population Projections: Methodology and Analysis*. New York: Kluwer Academic.

임 준 흥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041-840-1121, jhim@cdi.re.kr

충남리포트(2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문화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एको유지음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 이후,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가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